

10/10/21

설교 제목: 하나님 군대의 체계화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출애굽기 18 장 1-27 절

(출 18:1)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출 18:2)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 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출 18:3)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함이요

(출 18:4)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출 18:5)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출 18:6)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출 18:7)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출 18:8)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 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출 18:9)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출 18:10)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출 18:11)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므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출 18:12)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출 18:13)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출 18:14)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이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출 18:15)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출 18:16)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출 18:17)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출 18:18) 그대와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출 18:19)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출 18:20)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출 18:21)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이를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출 18:22)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출 18:23)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출 18:24)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출 18:25)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재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매

(출 18:26)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출 18:27)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18 장) 애굽 바로 왕의 노예로 430 년을 산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역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켜 시내산까지 인도하는 장면이고 후반부는 (19-40 장) 시내산에 1 년 간 머무르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을, 후반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반부의 마지막 장인 본문 18 장은 전반부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당신의 군대 이스라엘 자손 육십 만을 체계화시키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전반부의 결론을 60 만 여호와의 군대를 체계화하는 것으로 맺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자신의 딸이자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 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출 18:1)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출 18:2)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 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출 18:3)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숨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함이요

(출 18:4)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출 18:5)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출 18:6)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르우엘 또는 호밥으로도 불리는데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미디안 제사장 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애굽 궁중에서 도망쳐 나와 광야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이방 여인 십보라를 만나 결혼을 하고 장인과 함께 살았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왜 애굽으로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으나 추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모세를 지도자로 택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와 함께 애굽으로 갔던 처와 두 아들들을 언제 어디서 무슨 이유로 처가로 돌려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모세가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던 도중 아들의 할례 문제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 죽임을 당할 뻔하자 그들의 안전을 염려해 처가로 되돌려 보낸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모세의 소식을 들은 장인은 자신의 딸이자 모세의 아내 십보라 그리고 모세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진을 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산이란 시내산이라 불리우는 호렙산을 말합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진을 치고 있는 곳에 가까이 이르자 사람을 보내어 자신들이 왔음을 모세에게 알립니다.

자신들의 급작스러운 방문으로 인해 모세가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염려해 배려를 한 것입니다.

전갈을 받은 모세는 나가서 장인 일행을 반갑게 맞이하고 장인 이드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출 18:7)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출 18:8)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 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모세는 장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킨 일, 마라에서 쓴 물을 달게 바꾸신 일,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일, 르비딴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신 일, 아멜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일 등등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역사들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껏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전한 것입니다.

구속의 은총 곧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모세의 간증을 들은 이드로가 이방 신을 섬기는데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귀의합니다.

(출 18:9)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출 18:10)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출 18:11)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와 모든 신보다 크시므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출 18:12)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모세의 생생한 간증을 들은 이드로의 가슴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쁨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섬기던 신을 비롯해 다른 어떤 신보다 뛰어난 여호와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듣기만 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내가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만일 이드로가 하나님께 귀의하기 전에 번제물과 희생을 가져왔다면 이방 제사장으로서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으나 이제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주셨다는 은혜의 복음을 듣고 번제물과 희생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이드로 자신이 이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그의 희생 제사에 참석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음으로써 주안에서의 교제를 한 것입니다.

이튿날 이드로는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는 장면을 보고 모세에게 충고합니다.

(출 18:13)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출 18:14)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이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출 18:15)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출 18:16)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출 18:17)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출 18:18) 그대와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는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행정 처리 방식으로 인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격무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백성들도 자신들의 차례가 오기를 하루 종일 기다리느라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이 일을 보고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모세는 재판하느라 백성들은 차례를 기다리느라 기진하니 분화된 조직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인에게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모세가 하고 있는 재판이 신탁 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당신 뜻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모세를 대리자로 세우셨으며 그에게 지혜와 성신의 감동을 덧입히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대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분화적인 행정 조직을 세우라고 조언합니다.

(출 18:19)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출 18:20)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출 18:21)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이를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출 18:22)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출 18:23)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드로는 모세가 백성들의 소송을 재판하기에 앞서 먼저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는 백성들이 가져오는 문제나 사건들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온 백성 가운데 재덕이 겸전한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를 행함으로 얻는 이익을 미워하는 자 곧 탐욕이 없고 청렴한 자를 택해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재판을 하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드로의 이 충고를 이드로 개인의 사사로운 충고로 보기 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 충고를 한 시점이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이었다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고 개인의 충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드로는 이때 이미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유기적인 섭리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뒷바침 하는 예로 이드로는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이라고 단서를 붙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인가하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출발하려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출 10: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 10:2)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출 10:3)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요

(출 10:4)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며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이 행정 제도는 언제든지 군대 체제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분대 소대 중대 대대라는 군대 체제와 같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군대를 체계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당신의 백성을 군대 체계화 한 것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수행 과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이라는 행정 제도는 공궤하는 일에 골몰하던 초대 교회가
베드로의 제의를 받아드려 사역을 분담한 초대 교회의 조직을 연상하게 합니다.

(행 6:1-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렇게 행정 제도를 체계화 시킴으로 모세와 초대 교회는 많은 무리의 이해 다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조직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조직들을 효율적으로 체계화하여 하나님의 뜻 곧 만천하에 복음이 효율적으로 전파되도록
하는데 전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온 세상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전념합시다.